열린 가족의 미래: 신체 들의 연대와 반려의 윤리

The Future of an Open Family: The Solidarity of the Bodies and the Ethics of Companion.

류도향 Dohyang Ryu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않고 선택하지 않은 이들의 생명과 삶을 책임지는 열린가족의 윤리를 “반려”(Companion)의 개념으로 제안한다.

국문요약

필자는 네그리와 하트의 이론에 기대어 열린가족 패러다임을 사적인 것도 공적인 것도 아닌, 제3섹터로서 ‘공통적인 것’(the Common)의 영역에 정초하고자 한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공통적인 것의 풍부한 생태계 안에서만 가족을 유일한 피난처로 여기는 이데올로기를 탈피할 수 있으며, 내 식구, 내 가족만을 위한 폐쇄적 가족주의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 또한 가족과 공통적인 것을 연관지음으로써 가족을 통해 친밀성과 돌봄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사회의 잉여물이나 국가 통치의 인구로 내모는 구조적 모순에 저항할 출구도 만들 수 있다. 요약하자면 공통적인 것으로서 가족은 혈연가족, 준가족, 유사가족, 비가족, 가족 안의 타자들, 가족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자생적 커뮤니티들의 네트워크 속에서 열린 전망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헤러웨이(Danna J. Haraway)의 논의를 빌려와 수 많은 분류와 경계선들을 가로지르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Abstract

Relying on the theory of A. Negri and M. Hardt, I intend to establish the open family paradigm in the realm of “the common” as a third sector, neither private nor public. We can break away from the ideology of seeing the family as the only refuge only within the rich ecosystem of the common. We can break down the boundaries of closed familialism for my family only. In addition, by associating the common with the families, we can create an outlet to resist structural contradictions that drive those who are unable to be intimacy and cared for through the family into the surplus of society or a population of state governance. In summary, as the common, the families can have an open outlook in the network of kin family, quasi-family, semi-family, non-family, others in the family,

and spontaneous communities that complement and replace the family. Finally, I take Donna J. Haraway's discussions and propose as a concept of "Companion" to the ethics of open families, which are responsible for the lives of those we don't love and choose, crossing numerous classifications and boundaries.

1. 들어가는 말

근대 가족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구조와 종속을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데올로기이며, 개인과 소수자의 인권을 억누르는 보수적 제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대표적인 삶의 양식으로 공고히 자리매김되어 있다. 사람들은 안전, 사랑, 친밀성, 소속감, 생물학적 연대를 가족을 통해 충족하고 싶어하고, 가족생활의 구조와 가치들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제도와 에토스에 깊이 침윤되어 있다. 또한 우리는 이론 바깥에서 가족이 허위적 이데올로기 이상의 그 무엇으로 실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는 인간의 탄생과 정체성 형성, 타인과의 소통, 사회적 질서의 유기적 기초 및 협력의 원천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자본과 근대 국가의 통치에 맞서 다종의 실천을 제안하는 네그리(Antonio Negri)와 하트(Michal Hardt)는 가족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가족은 기업, 민족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시민주체들의 연대를 부패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오랜 역사에 걸쳐 개인주의 문화가 제도화된 서구와 달리, 공동체 문화, 가족주의, 집단주의가 강고하게 뿌리내린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폐기해야 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취급하기보다, 내재적 비판을 통한 구제의 대상으로 보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즉 가족을 탈출해서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합체를 건설하자는 네그리와 하트의 주장은 우리 현실의 사회적 관계와 실천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테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공통적인 것'(the Commom)의 범주 하에서 가족의 확장가능성을 탐구하고 가족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족과 같은 기본 생활공동체의 밀접한 소통과 연대를 수평적 네트워크형 연대성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적인 것도 공적인 것인 것도 아닌 공통적인 것의 토대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이다. 가족 친밀성을 어떻게 혈연과 친족관계를 넘어 타자에게 개방하면서 따뜻한 네트워크형 공동체로 확장할 수 있을까? 가족의 실재는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우아하지도 낭만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비루한 일상을 헤쳐 나가는 생활의 관계이고, 가장 인접한 거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유사성과 차이, 미지의 것과 상호섞임 ... 중층화, 중첩

화, 혼성화”의 과정에서 균열과 상호 적대, 파열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사이이다. 이런 미시관계의 분투를 우리는 어떤 기준점에서 시민적 연대성과 연결지을 수 있을까? 친밀한 관계의 공감과 소통이라는 낭만적 구상으로 과연 현실공간에서 시민적 연대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까?

2. 공통적인 것으로서 가족 : 발전주의, 개발주의, 성과주의 내파하기

가족 관계가 내밀한 사랑과 연대의 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적 삶으로 고립되는 원인은,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친밀성과 연대성의 상호보완적 확산을 가로막는 사회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한 국사회에서 자본과 국가는 ‘발전주의’, ‘개발주의’, ‘성과주의’ 논리 하에 압축적 근대화를 견인해왔고, 가족은 자본과 국가의 공모관계를 공고히 하는 경첩의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은 한편으로 자기유지와 상생을 위한 전략적인 경제공동체로서 도구적 가족주의 패러다임에 종속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 통치성의 토대가 되는 정상가족의 기능주의 신화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족은 운명적이고 하나뿐인 공동체라는 외양을 띄지만, 잘못된 사회에서 이런 집단적 에토스는 개별 구성원들에 대한 윤리적 폭력과 내적 관계성의 희생을 통해서만 유지된다.

필자는 네그리와 하트의 이론에 기대어 열린가족 패러다임을 사적인 것도 공적인 것도 아닌, 제3섹터로서 ‘공통적인 것’(the Common)의 영역에 정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공통적인 것의 풍부한 생태계 안에서만 가족을 유일한 피난처로 여기는 이데올로기를 탈피할 수 있으며, 내 식구, 내 가족만을 위한 폐쇄적 가족주의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 또한 가족과 공통적인 것을 연관시킴으로써 가족을 통해 친밀성과 돌봄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사회의 잉여물이나 국가 통치의 인구로 내모는 구조적 모순에 저항할 출구도 만들 수 있다. 요약하자면 공통적인 것으로서 가족은 혈연가족, 준가족, 유사가족, 비가족, 가족 안의 타자들, 가족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자생적 커뮤니티들의 네트워크 속에서 열린 전망을 가질 수 있다. 이 네트워크는 모든 것을 익숙한 혈연가족의 관념과 에토스로 회귀시키는 동일성의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관념 자체의 변동 및 친밀관계의 진화 양태들을 어떤 위계도 없이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처럼 배치하는 짜임관계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발전주의, 개발주의, 성과주의로 조직된 사회구조와 삶의 양식에서 가족은 근본적인 모순을 배태할 수 밖에 없다. 가족은 가장 근원적 인간관계로 신비화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속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하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문화적으로 승인받기 위한, 정서적으로 보상받기 위한 방패로 기능하는 가족 안에서 구성원들은 겉으로만 연결되어 있을 뿐, 내적 관계성을 상실한다. 가족은 하나의 기표다. 가족에 투사된 욕망은 사적인 것도 공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다. 그것은 다양한 신뢰 관계와 돌봄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실험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의 풍성한 생태계

를 가꿈으로써만 충족할 수 있다.

3. 신체들의 연대와 공거

그렇다면 이런 짜임관계의 공동체를 무엇을 근거로 가족으로 은유할 수 있는가? 필자는 버틀러(Judith Butler)를 통해 취약한 신체에서 그 가능토대를 찾는다. 가족과 정치, 즉 오이코스과 폴리스라는 공사 개념의 구분을 정식화했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는 신체의 욕구와 경제적 필요 등 가족의 삶을 결코 정치적 권리로 변형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마치 정치적 자유는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와 무관한 이들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인간 생명의 일시성과 유한성을 사유할 때 우리는 가족의 생활 안에서도 이미 정치적인 것 안에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가족은 신체의 형성적 역사에 있어 자아의 의식과 합리적 선택보다 일차적인 관계성을 맺고, 위태로운 삶의 조건 속에서 서로에게 불가피하게 의존적인 삶을 영위한다. 가족은 신체성과 매개되어 있으며, 의식 이전의 단계에서 나와 네가 주체와 객체로 분리되기 전 일차적 관계성에 기반한다. 이러한 관계성은 인간의 페르소나 발생에 관여하며 무의식적 이미지 또는 전의식에의 차원에서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족은 서로의 제스처, 리듬, 음성을 모방하면서 이미지, 음성의 연쇄, 움직임의 연쇄를 내면으로 수용하고 체화하고, 이는 피보호감, 소속감, 안전성, 확실성, 진실하다는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이 신뢰는 신체적 과정들에 근거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라는 것은 없고, 논리나 개념으로 파악하기에 늘 불충분하다.

또한 신체는 불평등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체계 속에서 고통받으며, 폭력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주거지와 생명 지속을 위해 신체들이 연대하는 이유다. 우리 모두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정치 조건 아래서 폭력, 빈곤, 그리고 노숙의 위협에 놓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회적 실존에 매어 있다. 따라서 신체들의 연대는 혈연가족의 특권적 실천이 아니라, 자본과 국가의 횡포 속에서 폭력, 빈곤, 노숙, 외로움, 독거, 고독사의 위협에 놓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수적이고 수행적인 권리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취약한 신체는 특정한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 퀴어들, 트랜스젠더들, 빈민들, 장애인들, 무국적자들, 동물들, 종교적·인종적 소수자들, 아울러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 타인과 사회적 인프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을 한데 모으는 표지이다.

우리는 신체의 차원에서 개체화 이전에 지상에서 공거한다. 지상에서의 공거는 인구의 혼종성을 사회적·정치적 생명 자체의 불가역적 조건으로 삼는다. 서로 이질적인 존재들이 제한 없이 복수적으로 공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폐쇄적 가족주의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가족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다른 이들(여성들, 퀴어들, 트랜스젠더들, 빈민들, 장애인들, 무국적자들, 동물들, 종교적·인종적 소수자들)의 공거를 박탈하는 일을 은폐하거나 굴절시키는 데 이용되는 상황에 반대해야만 한다. 요약하자면 열린가족 패러다임은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포용되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취약한 신체들의 잠재적 연대의 형식들을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가족의 의미가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

4. 반려의 윤리

열린가족 패러다임에 대한 구상은 수많은 사회적·문화적·제도적 경계와 문턱들에 의해 타자화된 신체들을, 나와 너의 타자성을 우리가 서로 어떻게 마주해야하는가라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필자는 헤러웨이(Donna J. Haraway)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분류와 경계선들을 가로지르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들의 생명과 삶을 책임지는 열린가족의 윤리를 “반려”(Companion)의 개념으로 제안한다. 헤러웨이는 「반려종 선언」에서 인간을 ‘반려종’으로 선언한다. 그녀가 정의하는 반려종은 “반려동물보다 크고 이질적인 범주”, 즉 “말, 개, 고양이를 비롯해 봉사견, 가족 구성원이나 다종 스포츠의 팀 구성원 같은 생명사회성으로 도약할 의지가 있는 존재자” 등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소중한 타자가 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자연문화의 공생발생적 신체조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살/실체 속에서 이데올로기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함께 살아간다. 헤러웨이는 우리 삶을 분석하는 최소 단위를 “관계”로 보아야 하며, 모든 수준에서 타자성과 결부되어 있는 공거의 조건에 접근할 때 윤리적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한국 사회에서 최근 반려동물, 반려식물 등 인간 외 종과 동반하는 삶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있는 “반려” 개념을 대안근대성 패러다임을 촉구하는 문화운동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공/사이분법의 틀에 종속된 우리의 위태롭고 고립된 삶의 양식을 신체의 차원에서 개조하는 “메타플리즘”(metaplasms, 어형변이, 후형질)을 실험해야 한다.